

역사의 교훈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에 나섰습니다. 정부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50대 초반의 젊은 인사로 등용하면서 젊고 소통하는 청와대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과격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 처럼 임기 내 내 초심을 잃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1956년 창간된 『考試界』가 2017년 6월호로 창간 6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그리고 좋은 글을 계속 보내 주시고 격려 주셨던 교수님들과 집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考試界』가 창간될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의 어려운 경제적·문화적 상황속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의 발현이라는 목적과 행정부와 사법부 및 입법부의 핵심 동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간 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간 후 61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러 독자들의 애정과 전국에 계신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대 교수님, 많은 법조인, 나아가 여러 집필자님들께서 양질의 육고를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이며 역사가인 E.H.Carr 교수는 그의 명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해석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와 역사관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역사가 이해되고 또한 해석되며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考試界』 61년의 역사, 아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점이라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인 데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정 상 훈

- 월간 고시계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 미디어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한국잡지협회 정관개정위원장



등불을 밝혀 주는 『考試界』가 창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考試界』는 축복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5월 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서에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국가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이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면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차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考試界』는 예나 지금이나 굳은 생명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 동안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왔던 법률관련 월간지들이 이미 종적을 감춘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考試界』만은 법학자, 법조실무가, 법학도의 친근한 이웃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考試界』의 생명력은 바로 대한민국 법률문화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考試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애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